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부활절 후 첫째 주일을 맞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역별사랑방 방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 교회운영위원회가 오후 2시에 모입니다.
- 공동체운영위원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 연령별사랑방 교사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8 - 15 호
2021년 4월 11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랑방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즘 성서일기 진도는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창세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처음 시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모든 식물과 해와 달과 별, 바다와 물고기와 새와 각종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해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달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나무와 온갖 강한 동물들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신으로 알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특히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들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마도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은 그간 신으로 여겨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자신들의 원래 위치를 찾아주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으로 등장하며 다른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한낱 피조물일 뿐이라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창세기 1장의 내용은 온 세상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희 일월성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신으로 모시는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던 것이란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에 질서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이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경계가 없던 곳에 경계를 만드시고, 각종 종류대로 그 분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실제 성경 본문도 반복되는 표현을 사용해서 일종의 규칙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8회), 보시기에 좋았다.(7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6회), 그대로 되었다.(6회)

하나님은 창조는 아름다운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두어서 그 동산을 가꾸게 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고 가꾸는 일을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대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매일 경험하는 일인데, 잘 정돈된 집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게 되면 집이 너무나도 쉽게 흐트러지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겪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다시 정돈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어질러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누군가가 질서를 유지하게끔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면, 무질서가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입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4월 만물이 풍요로워지는 이때 창세기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며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깨닫는 것은 참된 진리를 알아가는 첫 시작이며, 온 만물과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어떻게 가꾸고 돌봐야 할지 깊이 고민해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남은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
< 이사야서 10장 21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창세기 3장
제목 : 예수로 옷 입읍시다
인도 : 권재만 목사　　기도 : 김영화 권사
찬송 : 405　401　86　180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7 인간의 범죄
8-19 하나님의 징벌
20-24 하나님의 은혜

2. 내용의 의미(Why)
1) 하와와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징벌하셨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3. 의미의 적용(How)
1)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심판하십니다.
3)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꼭 살길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코이노니아로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

"코로나 19로 교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우문이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가 쓰러질 리 있겠는가. 불신의 눈길을 넘어서 혐오의 쏘는 눈빛으로 휘청거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려와 분노의 감정이 교차해 나도 모르게 나온 질문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정태일 못사의 얼굴에 잔주름이 일렁거렸다. 순간이나마 근심이 스며든 정 목사의 눈빛에서 따뜻한 온기가 반짝 떠올랐다.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건 당연하겠지요. 저 스스로도 많이 하고 있고요. 염려는 좀 됩니다만,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 등장해서 큰소리치는 교회나 목사는 일부이니까요. 다른 목사와 성도들은 잠잠히,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해를 쓰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공동체가 많이 생겨나는 것도 이를 증명하지요." 이어서 덧붙인 정 목사의 말에 나는 교회를 향해 움터 오르는 '짐작'에 대항해 단호히 빗장을 질렀다. "낙관의 논리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이고 희망의 논리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라는 어느 문학평론가의 말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이다.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들 하나 교회가 본래 모습을 보일 수만 있다면 선교는 가능합니다." 젊은 날, 교회 본질 추구를 위한 정 목사의 고미은 공동체 운동으로 전개되었다. 1984년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서울 종로5가에서 사랑방공동체를 시작한 것이다. 그해 한국교회는 선교백주년을 맞아 단기간 이룬 양적 성장을 자축했다. 그러나 사회 일각에서는 삶과 신앙이 분리된 기독교인의 이중적 태도, 교회의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교회 내에서도 성숙과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시 유전공학, 전자과학이 발달했어요. 소설 [1984]에서 조지 오엘은 전자과학의 발달로 인간이 인간 됨을 상실하는 비인간화를 예고했고요. 실제로 인간 사이에서 관계가 단절되고, 생명이 경시되는 풍조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목회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마음속에서 움트더군요.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복음의 결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성령에 의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적인 삶,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인데, 교회 본래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

이승연 취재, 글 [빛과 소금, 2021 3월호] 중 일부 발췌.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정태일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초청의 말씀	시편 84 : 1-4	인도자
*예배의 찬송	1	다함께
*기원의 기도		인도자
*기원찬송	영광 영광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참회의 기도		
*용서의 말씀	요한복음 8 : 11b	인도자
*신앙고백		다함께
고백의 찬송	528	다함께
공동기도		다함께
목회기도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성경낭독	이사야 10 : 20-23	설교자
성가대 찬양	539	사랑방
설 교	" 남은 사람들 "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의탁의 기도		설교자
응답의 찬송	459	다함께
*봉헌기도		인도자
*영광찬송	455(3)	다함께
*위탁의 말씀		설교자
*강복기도		설교자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중필 이현숙 / 봉헌위원 : 김중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남은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남은 사람들 가운데 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 주십시오. 아멘.

남은 사람들

남은 사람들. 오늘의 말씀 중에 반복된 용어가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과""살아남은 사람들이"<20> "남은 사람들이""남은 사람들이"<21> "오직 남은 사람들만이"<22> '남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반복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남은 자' 사상은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 거룩한 씨앗.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 '남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왕국 유다의 불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서의 또다른 내용<사6:13>에 의하면 '남은 사람들'은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 즉,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하시는 도구로서의 신앙공동체를 잇는 창조적 소수라는 의미입니다.

남은 사람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남은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바울은 <롬9:-11:>에서 구원사를 요약하여 소개할 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롬9:5> 말했습니다. 오늘의 남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랑방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은 '남은 사람들'이라는 인식과 책임을 갖고 남은 사람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이현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따스한 햇볕을 식혀주는 바람이 솔솔 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더위가 한결 가셔서 아이들이 뛰어 놀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숲에서 나무들을 보는데 흔들거리는 바람의 몸짓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봄을 만끽하고 누리는 행복한 한 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봄이 되면 꾸러기들이 좋아하는 예쁜 꽃전을 만듭니다. 진달래, 개나리, 쑥, 제비꽃을 따서 깨끗하게 씻고 반죽에 올려서 예쁘게 굽습니다. 그러면 화사한 꽃전이 완성되는데 올해는 특히 바삭하면서도 달달한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넉넉하게 만들어 정태일목사님댁부터 어린이, 멋쟁이, 목공소, 공동체사무실을 돌아가면서 꽃전을 나눔하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하는지 나눔의 기쁨을 자연스레 배우는 아이들의 마음 밭은 나중에 얼마나 클까요? 만드는 즐거움과 먹는 즐거움 그리고 나누는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매달 꾸러기는 주제에 맞는 체육을 하는데 4월은 균형잡기를 합니다. 의자와 상 그리고 평행대를 길게 연결해서 큰 원의 장애물을 만들었습니다. 7살 선배들의 멋진 시범으로 시작해 5살 동생들이 뒤 따라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몇 바퀴를 도는데 가장 중요한 안전을 위해 천천히 가라고 알려줬는데 성급하게 빨리 가려는 친구들도 있어서 선생님들이 바로 옆에서 안전지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다치는 친구 없이 모두 멋지게 장애물을 통과했습니다. 끝나고 또 하고 싶은 꾸러기들의 표정이 참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월요일 개교기념일이라 푹 쉬었는지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은 한주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드리는 뜻으로 달걀 과자를 준비해서 아이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 속에 든 장난감은 동생들에게 양보하는 센스를 발휘한 언니 오빠들도 멋지구요~^* 그리고, 구충제도 함께 먹었습니다.

수요일엔 반별사진과 학년별 사진을 찍었습니다. 활짝핀 꽃들속에 아이들이 사진을 찍으니 누가 아이고 꽃인지 구분이 안 된듯 했답니다. 공동체 식구들이 그 사진속의 아이들처럼 맑고 밝게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닫는 시간에 권재만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건강한 나날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경임 선생님께서 수술후 회복중이십니다. 어린이학교 모든 식구들이 기도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능 회복하셔서 아이들과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지난 2주간 지속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평상과 다르게 월요일 저녁에 등교했습니다.

역시 주말에 3일 동안 쉬었기 때문에 멋쟁이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몸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3학년 멋쟁이, 5학년 멋쟁이, 6학년 멋쟁이들은 검정고시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함께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가끔 늦은 밤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작은 시험이지만 학생들은 나름대로 긴장하기도 합니다.

문서부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멋쟁이학생들이 공감하면서, 동참의 의미로 자신의 이름들을 적었습니다. 멋쟁이들이 스스로 앞에 나서서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토요일마다 모든 멋쟁이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 교사 : 해 은 >

상처로 자라는 것들

영화를 보았습니다. 수면 위와 아래에서 제각기 전혀 다른 몸짓으로 버텨야 하는 스포츠인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을 소재로 한 영화였습니다.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은 수중 운동의 한 가지로, 음악에 맞추어 선수가 수면 위에서 동작을 연기하는 경기 종목입니다. 흔히 '물속 발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은 좋아하는 상대의 멋진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공연에는 단지 물 밖에 드러난 절도 있는 동작뿐 아니라, 물속에서 몸을 받치기 위해 격렬히 헤엄치는 다리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실망이 아니라 더 강렬한 이해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외부의 압력에도 자기만의 부력과 균형을 유지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지키며 적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영화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작년 가을, 이사를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산다며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짐을 아무리 흩어도 방 하나밖에 채우지 못했던 공간은 멋쟁이들의 등교와 함께 가득 채워졌습니다.

멋쟁이의 하루일과는 묵상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것은 공식적인 시간표상의 이야기일 뿐, 진짜 마무리는 각방으로 흩어진 다음 시작됩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이불 안에서 하루 동안 재밌었던, 속상했던 이야기를 가장 솔직하게 나눕니다. 감사하게도 이사 후 멋쟁이들과 함께 자고 깨며, 자연스럽게 멋쟁이들의 이불 대화에 초대되었습니다. 음식 취향부터 성격, 이상형, 진로, 신앙, 가족 등 다양한 주제로 밤마다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갑니다.

그리고 하루는 꼭 상처를 나눕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나눕니다. 화났던 것, 억울한 것, 못하는 것, 두려운 것, 어쩌면 지금 아파하는 것. 자기 연민이 아닌 지금의 '나'를 만든 상처를 나눕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상처를 나눕니다. 서로 경청하며 더 깊은 인정과 이해,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았을 때 쉽게 실망했던 과거를 돌아봅니다. 어려움을 나누던 상대에게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테니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던 날을 돌아봅니다.

사랑으로 인정합니다. 인정을 통해 더 사랑합니다. 무책임한 말 대신 지금 마주한 상대를 알아주고 안아줍니다. 상처는 '나'를 키웁니다. 상처는 '우리'를 키웁니다. 상처는 '사랑'을 키웁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장성아 교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씀 : 요한복음 11장 21-30절
인 도 : 해 은 전도사
기 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Save Myanmar(미안마를 구해달라) >
(AFP)'부활절 달걀'이 미얀마 군사 통치에 대한 저항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4일 부활절을 맞은 미얀마 시민들은 부활절 계란에 반(反) 군부 메시지와 다양한 그림을 담아 SNS에 올리거나 이웃집 문 앞에 남겨두면서 온 국민이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다지는 데 동참하고 있다. 미얀마 시민들은 수지의 이미지와 세 손가락 경례(항의의 몸짓)로 장식된 부활절 달걀에 '미얀마를 구해달라(Save Myanmar)' '민주주의(Democracy)' 등의 글귀를 적어 SNS에 올리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욱 단결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동광원을 위한 기도>
(1) 병환 중에 계신 김금남 원장님과 동광원 식구들을 위해
(2) 동광원 신년 총회를 위해 기도하고 새로운 임직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3) 귀일영성 아카데미 활동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이 될 수있도록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계절을 충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공동체 마당에서는 웃음과 환호(歡呼)가 넘치고 있습니다. 사랑방공동체 온 식구들은 부활의 기쁨과 희망으로 활기차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 생활공동체 소식 〉

지난 주는 화창한 전형적인 봄날이 이어졌습니다. 월요일은 공동체 학교 개교기념일로 학교는 휴업을 했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화요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변정리를 위해 역할을 나누고 한 주간 맡은 구역을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배수로 작업과 땅 고르는 작업이 있었고, 자연예배당 화장실을 수리 보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양한 작물을 파종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푸른 나무들처럼 활기가 넘쳐나는 생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정재훈 전도사 >